



정신력 끝판왕, 5세트 최강자는 누구?

테니스에서 5세트는 그야말로 정신력의 싸움이다. 올 시즌 윔블던과 US 오픈 결승은 모두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자들이 정해졌다. 윔블던에서는 조코비치가, US오픈에서는 나달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우리는 결승뿐만 아니라 많은 라운드에서 5세트 접전 경기를 지켜봤다. 보는 사람마저 지치게 하는 이러한 풀세트 경기에서 강인하고 끈질긴 정신력으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선수들은 누구일까?

글_김진건 기자 사진_GettyimagesKorea

최고의 멘탈, 정신력 끝판왕

니시코리 케이(일본) 승률 79.3%(23승 6패)

정현(한국) 승률 75%(6승 2패)

아시아 넘버원 니시코리와 끈질긴 수비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정현은 풀세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 두 선수 모두 통산 75% 이상의 승률을 기록 중이다. 니시코리는 2018년 11월, 9위를 기록한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톱10에 있고, 정현은 부상에서 돌아와 완벽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대륙에 비해 아시아는 체격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두 선수는 끝을 모르는 끈기와 강인한 정신력을 앞세워 경기가 길어지더라도 상대 선수가 질릴 정도로 코트 이곳저곳을 휘젓는다. 5세트 경기에서만



은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수비 테니스의 끝판왕 조코비치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올 시즌에도 니시코리(5승)와 정현(3승)은 풀세트 100%의 승률을 기록 중이다. 니시코리는 호주오픈에서 총 세 경기가 5세트까지 진행됐지만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정현은 US오픈에서 두 경기 연속 5세트까지 경기를 펼쳤고 이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특히 2회전에서 페르난도 베르다스코(스페인)와의 경기는 세트 스코어 0-2에서 거둔 대역전극이었다. 니시코리와 정현은 실력과 경험을 떠나서 정신력만큼은 아시아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줬다.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승률 75%(30승 10패)

조코비치는 올 시즌에도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제패하며 변함없는 아우라를 뽐냈다. 절로 감탄이 나오는 그의 수비 테니스는 풀세트 접전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승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윔블던에서는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상대로 4시간 55분 동안의 접전에도 마지막까지 특유의 끈질긴 수비로 페더러를 압박했다. 페더러가 체력적으로 불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코비치는 페더러의 모든 공을 쫓아가 받아넘기면서 굉장한 활동량을 뽐냈다. 그는 지난해 윔블던 준결승에서도 나달을 상대로 풀세트 끝에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상급 실력만큼 정신력까지 갖춘 그는 역시나 세계 정상에 있는 선수이다.



의외의 약자, 풀세트와 나이는 무관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 승률 0%(5패)
프란체스 티아포(미국) 승률 11.1%(1승 8패)

모든 종목은 장기전으로 돌입했을 때 가장 먼저 체력이 거론되며 경력이 오래된 선수가 경기에서 졌을 때는 노쇠했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하지만 테니스에서는 장기전과 나이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일까?

메드베데프(23세)와 티아포(21세)는 20대 초반으로 가장 힘이 넘칠 시기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풀세트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티아포는 올 시즌 US오픈(2회전), 윔블던(1회전), 프랑스오픈(1회전) 등 세 개의 그랜드슬램에서 풀세트 끝에 패하며 조기 탈락했다. 그가 커리어에서 거둔 유일한 5세트 승리는 지난 호주오픈 3회전에서 안드레아 세피(이탈리아)에게 거둔



집념의 나라 스페인?

라파엘 나달 승률 64.7%(22승 12패)
로베르토 바티스타 아гут 승률 64.7%(11승 6패)

스페인인 집념의 나라인 것일까. 나달과 아гут은 풀세트에서 65%에 달하는 승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아гут은 올 시즌에도 3승 1패로 75%의 승률을 자랑한다. 스페인에서는 주니어 선수들을 클레이코트에서 훈련시킨다. 다른 코트에 비해 몸에 무리가 덜 한 클레이에서의 훈련은 몸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작은 부분이지만 주니어 시절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훈련했던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것일까.

톱10 선수 중 두 선수가 풀세트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가진 나라는 스페인인 유일하다. 특히 두 선수는 30대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달은 시리즈 마지막 그랜드슬램인 US오픈 결승에서 20대 신예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와 4시간 49분 동안 혈투를 벌였지만 오히려 집중력과 체력에서 메드베데프에 앞서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도전을 물리쳤다. 아гут도 올 시즌 호주오픈에서 총 세 번의 5세트 경기를 했지만 모두 승리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1, 2회전은 연속해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지만 결국 승자의 위치에는 아гут이 서 있었다.

또한 ATP투어 남자단식 세계랭킹에서 100위권 안에는 총 8명의 스페인 선수들이 있는데 이들 중 세 명을 제외하고 다섯 명의 선수들이 모두 5세트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한다. 집념의 나라 스페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스페인은 정신력과 체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것이 유일하다.

메드베데프는 올 시즌 세 번의 풀세트를 치렀지만 역시나 모두 패했다. 나달, 다비드 고핀(벨기에), 피에르 위그 에르베르(프랑스)와 치렀는데 상대가 모두 20대 후반이나 30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장기전에서는 체력보다 정신력이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아직 어린 선수에 속하는 정현의 5세트 성적은 그의 강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칭찬하게 만든다.🏆